



## (33) 남도 가을축제- 전남

## 23개 축제 퍼레이드... '골라보는 재미' 있다



지난해 순천 낙안읍성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14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대장금으로 분장한 여학생들이 남도대표음식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다음 달 29일부터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열리는 함평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국화꽃밭.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을! 축제의 고장, 전남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남도의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다. 오는 10월 2일 국성 싱싱축제를 시작으로 2008 명랑대첩축제, 남도문화음식큰잔치, 순천만갈대축제, 나주 영산강문화축제,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 정성 백양단풍축제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형 축제 23개가 잇따라 열린다.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대표 축제와 인근 볼거리를 소개한다.

### ◆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자연에서 찾은 어머니 손맛! 남도생활이야기'라는 주제와 '남도의 밥상! 한국인의 건강'이란 슬로건으로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민속마을에서 대한민국 우수축제인 제15회 남도 음식문화큰잔치가 열린다.

남도음식 22개 시·군 명인음식관, 밭효식품생태환경관, 남도민속주관, 남도음식역사관, 남도차와 그릇관 등 다양한 음식전시와 음식기네스도전, 음식달인열전, 음식체험마당, 22개 시·군 명인음식 특별장터, 남도 음식대전, 다문화가정 남도음식대전, 푸드스타일링 열전 등 경연과 음식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농수특산품 전시판매점과 시군의 민속공연도 체험할 수 있다.

주변의 볼거리는 축제기간 동안 무료로 개방되는 축제장인 낙안읍성 외에도 승보사찰인 송광사, 선



### 먹을거리·볼거리 오감만족 가을 축제 체험행사 등 풍성...주변 관광지도 일품

내달 28일부터 갈대축제가 열리는 순천만 갈대밭.

암사, 전국 최대습지인 순천만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문의=순천시 낙안읍성 관리사무소 061-749-3347

### ◆ 2008 명랑대첩 축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일원과 진도군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명랑대첩축제가 열린다.

세계해전사상 유래가 없는 대전승의 역사적 의미

를 재조명함은 물론 해상전투재현과 백의종군랠리, 심리 강강술래, 상생의 위령식김굿, 평화깃발 만가 행렬, 세계 굿 페스티벌, 스토롱멘대회와 각종 체험 행사, 학술세미나, 국제 굿 컨퍼런스,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명랑대첩지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이 13척의 판옥선으로 명랑해협의 지형과 조류를 이용해 서해로 북상하는 왜선 133척을 물리침으로써 임진왜란 7년

을 끝낸 결정적인 계기를 이룩한 곳이다.

주변의 볼거리는 두륜산도립공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 땅끝 관광지, 땅끝 조각공원, 통일신라 때 창건된 미황사, 9천만년전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유적지, 운립산방, 세방낙조 전망대, 관매도 등이 있다. 문의=명랑대첩축제 상황실 061-286-5244, 5245

### ◆ 순천만 갈대축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순천시 순천만 일원에서 순천만갈대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갈대체험과 조류 관찰장, 생태연못, 관찰데크, 전망대, 갯벌체험 등 생태체험을 할 수 있으며, 유료로 갈대밭 자전거투어, 선상투어, 흑두루미 열차체험, 아와 별자리체험도 할 수 있다.

갈대숲으로 유명한 대대포구는 낙안읍성에서 순천방향으로 나오다 만나는 순천 청암대학 맞은편 도로로 들어서야 한다.

순천만의 갯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붉은 해가 환상적이다.

순천만의 일몰은 바다와 갯벌, 갈대를 온통 붉게 물들여 사진작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송광사, 선암사에서 사찰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찰음식 전시 및 판매, 산사체험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다. 문의=순천시 문화관광과 061-749-4264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도 관광객 유치 총력

### 코레일·수도권 여행사 등과 업무 협약

전남도가 남도여행 상품화를 위해 코레일(Korail) 광주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전남 방문의해 막바지 방문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도청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업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수용태세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관광업계 전략회의를 갖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략회의에선 광주·전남 방문의해를 맞아 범도민 친절운동 확산 및 남도의 친절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남도 친절왕'(10명)과 남도투어 랠리 여름리그 당첨자(4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특히 남도여행 상품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코레일 광주지사, 그리고 수도권 여행사인 (주)아름여행사, 롯데관광개발(주)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도 친절왕'은 관광현장·언론·인터넷 등을 통해 발굴한 관광업 종사자·문화관광해설가, 도민 중 친절·정결 우수 실천자다.

수상자 중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상가번영회(회장 정운철·61)는 번영회 자체 결의대회를 통해 바자지 요금 균질 및 요금 표시제를 실시하는 등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전국적 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번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갈 정도로 친절을 생활화하고, 음식문화와 숙박시설 등 주변 환경까지 깨끗이 가꾸는 청결 의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중국인을 잡아라"

### 관광상품 판매촉진 설명회·간담회

광주시가 광주·전남 방문의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장 개척에 나선다.

시는 21일부터 8일간 홍콩과 중국 광저우(廣州), 난창(南昌),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를 방문해 현지 한국상품 기획사, 판매사, 언론사, 항공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 관광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관광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관총활동은 홍콩 중심에 유유한공사, 광저우 시 광동국제여행사, 난창시 강서광대국제여행사 등 현지 유수의 여행사와 관광업무 제휴협약을 통해 새 시장을 개척하고 광주를 포함한 방한상품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단체 관광객을 시작으로 광주지역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보내고 있는 상하이 지역의 한국상품 판매사를 대상으로 세일즈콜과 간담회를 열고 방한 관광객 확대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시는 그동안 미흡했던 광주~제주간 이동문제와 체험상품을 지난 7월부터 고흥 녹동항과 목포항을 이용한 고속페리와 남도음식 체험프로그램으로 보강해 외국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관총활동에서는 이를 코스화한 관광상품을 적극 판매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등 여행사 압도적 1위(45%)

**하나투어**

한국관광 대상자 1위

**나들이여행**

한국관광 대상자 1위

**BEST OF BEST**

한국관광 대상자 1위

**무안=홍콩**

한국관광 대상자 1위

**제주=상하이**

한국관광 대상자 1위

**제주=상하이**

한국관광 대상자 1위

**제주=상하이**

한국관광 대상자 1위

한국관광 대상자 1위

한국관광 대상자 1위

한국관광 대상자 1위

한국관광 대상자 1위